

제 목	국 문	우리나라 의대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영 문	Professional Socialization of Medical Studen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한 달 선 <sup>1)</sup> , 배 상 수 <sup>1)</sup> , 조 병 회 <sup>2)</sup> , 김 창 엽 <sup>3)</sup> , 이 상 일 <sup>4)</sup> , 이 영 조 <sup>5)</sup> , 1)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2) 계명대 사회학과 3) 서울의대 의료 관리학교실 4)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5) 서울대 통계학과		
	영 문	Dalsun Han <sup>1)</sup> , Sangsoo Bae <sup>1)</sup> , Byung Hee Cho <sup>2)</sup> , Sang-il Lee <sup>4)</sup> , Youngjo Lee <sup>5)</sup> 1) Dep. of Social Medicine, Medical Col. Hallym Univ. 2) Dep. of Sociology, Col. of Social Science, Keimyung Univ. 3) Dep. of Health Policy and Manage., Col.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 4) Dep. of Preventive Medicine, Col. of Medicine, Ulsan Univ. 5) Dep. of Statistics, Col.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조병희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의료계의 내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의사들의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의사로서의 의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전국의 5개 의대의 예과 1년, 본과 1년, 본과 3년생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전문직 이념과 전문직업성에 대한 질문과 의대진학과정, 의학교육 만족도, 의사직에 대한 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구성하였다.</p>				

### 3. 연구결과

의대진학 결정은 본인의 희망(64%)에 의하여 주로 고2 이전(63%)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과반수가 집안에 의사가 있었으며 의대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59.1%였다.

이들은 의사직이 좋은 이유로서 직업안정성(33.6%)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으며 의사의 영리추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67.7%)을 하고 있었고 월기대수입은 300만원이었다. 정치사회의식은 중도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전문직 이념과 전문직업성 문항들을 요인분석 후 각각 4개(인간, 과학, 대내지위 관리)와 7개의 척도(정책자율성, 임상자율성, 지배, 독점, 심성, 직업윤리, 생윤리)를 구성하였다. 의대생들은 인간요인과, 직업윤리, 정책자율성을 다른 요인들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 변화과정을 보면 전문직 이념의 경우는 '대내적 지위관리' 요인을 제외하고 학년별 변화가 없었다. 반면 전문직업성에서는 '윤리나 심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은 집단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 성장지, 종교, 계층, 부모직업에 따라서 전문직 이념과 전문직업성에 차이가 없었다.

전문직 이념을 중시하는 집단은 본인이 희망이나 무동기로 진학한 학생들, 의대 만족자들, 보상을 중시하고 기대소득이 높은 자들, 임상교수 지원자들이었다.

전문직업성을 중시하는 경우는 의대진학 결정이 아주 이르거나 아주 늦은 자, 보상중시자, 영리추구에 긍정적인 자, 빈부격차 해소에 관심이 없는 자, 예과에서 실용과목이나 예술과목을 원하는 자, 서울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 기대소득이 높은 자들이었다.

### 4. 고찰

의대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성의사들을 급속하게 닮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권리주장은 강해지지만 그에 수반하는 전문직이념의 발전을 결여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전문직업성의 구축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